

무안군, 전기자동차 ·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전기차 52대 19일까지 접수...전기이륜차 4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취득세 감면

무안군(군수 김산)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52대, 전기이륜차 1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 코나 · 아이오닉 ▲기아 니로 · 쏘울 ▲르노삼성 SM3 ▲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S ▲닛산 LEAF 등으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에서(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최대 1,560만원까지,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서를 첨부해 전기자동차

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전기이륜차는 이달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안군 환경과(☎061-450-5556)에 접수하면 된다.

정환중 환경과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기후변화대응팀장 이효정 450-5556)

/무안=류춘범 기자

기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준수합시다



문두석 무안경찰서 승달파출소 경위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신호와 표지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대척이 절실하다.

신호등 옆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적색 신호 시 좌회전 금지" 문구도 붙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색 신호 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어 질문해보면, 대다수 운전자들이 "비보호 표지판이 있어 좌회전 하였느냐"며 도리어 "무슨 위반을 하였느냐"며 반문을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시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좌측보행자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 할 수 있으며, 적색 신호 시에는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

적색 신호일 때 좌우측면은 녹색등 정상신호이며, 자칫 대항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규 위반인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의 뜻에는 적색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색신호 시 좌회전 하다가 교차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한 차량과 사고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의 적용을 받는 중대과실사고에 포함 된다.

또한 녹색(직진)신호 시에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진다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 도로를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무안군, 조생양파 폐기 후 포전거래 가격 상승

2월 중순 3.3㎡당 4천원...폐기 후 1만원까지 거래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과잉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양파 가격하락이 지속되자 신속한 시장격리로 3월 중순까지 61.3ha 면적의 조생양파를 폐기했다.

군은 지난 2월 초부터 조생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민회,

양파생산자협의회, 농협, 병장협의회와 긴급 감담회를 가졌으며, 농식품부 장관과의 면담과 조기 산지 폐기를 건의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지난해보다 한 달 먼저 조생양파의 폐기를 마쳤다.

군은 조생양파 폐기를 위해

3.3㎡당 5,922원의 폐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농가 지원금은 4,738원으로 농가들이 1,184원의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자 서둘러 농가 부담분 2억 2천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진희 양파마늘팀장은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생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부터 수도권 관측행사 등 대대적인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조생양파 재배 864농가 중 절반이 넘는 466명이 참여했고, 폐기 지원금도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11억 원으

로 집계됐다.

또한, 2월 중순경 조생양파 포전거래 가격이 3.3㎡당 4천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만원까지 거래되어 산지폐기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진희 양파마늘팀장은 "양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생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부터 수도권 관측행사 등 대대적인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류춘범 기자

무안군, 삼남매 승달장학금 100만원 기탁

이가이 · 이태이 · 이현준 초 · 고 · 대학생 쾌척



무안군(군수 김산)은 "이가이(목포대 행정학과 1학년), 이태이(전남예술고 1학년), 이현준(목포서부초 5학년) 형제자매가 5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무안군 승달장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남매는 목포 라이온스클럽에서 받는 장학금 50만원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증조할머니께서 평생에 주신 용돈 50만원을 모아 기

탁했다.

특히, 이가이 학생은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학생으로 지난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승달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산 군수는 "기탁한 장학금은 우리군 학생들이 앞으로 무안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뜻깊게 사용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평생교육팀 양미량 450-5337) /무안=류춘범 기자

무안군, 양파 노균병 방제 당부

겨울철 온도 상승 요인 조기 발병...30%까지 수확 감소

무안군(군수 김산)은 겨울철 온도가 비교적 따뜻한 현경면, 운남면 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노균병이 발생함에 따라 양파 노균병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노균병은 양파 잎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며,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병·해충으로 노균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발 전체로 퍼져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조기에 병이 발견된 포기는 가능하면 일찍 뽑아서 땅에 파묻거나 먼 곳에 버리는 것이 좋으며, 병이 관측된 시기부터는 체계적인 방제가 필요하다.(양파마늘팀장 이진희 450-4066) /무안=류춘범 기자

무안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무안을 상징 ·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총상금 1,300만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무안군의 문화 · 관광자원 · 축제 · 특산물 등을 소재로 지역을 상징 ·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2019 무안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일반상품(완제품) 부문과 아이디어(시제품) 부문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일반상품 부문은 개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상징 · 대표하면서 상품성이 뛰어나 즉각 양

산 가능하여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상품(완제품)을 접수 받으며, 아이디어(시제품) 부문은 대학생 및 개인을 대상으로 독창적이고, 실현적이면서 향후 상품화하여 판매 가능한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공모전 접수는 2019. 9. 30. ~ 10. 4.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전 상금은 일반상품 부문 대상 500만원, 아이디어 대상 100만원 등 총 1,300만원이 지급된다. /무안=류춘범 기자

무안군, 제1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5일 무안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1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발굴 및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 및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1기 도시재생대학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1월부터 2월까지 8주 동안 문화 · 예술, 교

육, 농업 · 복지, 중심상가, 청년 등 분야별로 운영되었다.

서삼재 수료자는 "항후에도 무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과 행정이 적극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도시재생팀장 배흥태 450-5766) /무안=류춘범 기자

산불 예방은 나 자신부터!

주민들께 산불예방을 위해 당부 드리는 말씀

- 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불을 피우지 마세요!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하지 마세요!
-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산림 100m 이내 지역 소각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산불 신고 무안군 산림환경과 ☎ 450-5581-5583

무안군, 서남해안 경관 육성 목포 · 신안 동참 사업 시작

무안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과 함께 '서남해안 명품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함으로써 서남해안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해안내륙권 발전거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에 전남도와 서남권 4개 시 · 군(목포, 나주, 무안, 신안)이 함께한 '전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의 후속 실행계획 성격의 용역이다.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묶어 관광 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연계하는 셋길 조성, 자연거길 · 도보 탐방로 등을 엮는 무동력 길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무안=류춘범 기자

무안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추가 모집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추가 모집 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군이 공동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명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로 가구소득이 150%이하여야 한다. (일자리팀장 김윤택 450-5731) /무안=류춘범 기자

무안군, 이장 역량강화 직무워크숍 개최

김산 군수 "항공특화산업단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모종국 위원장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저지 이장 동참 당부"

무안군(군수 김산)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한 '2019년 이장 역량강화 직무워크숍'을 지난 7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 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무안군 이장협의회(회장 박동연) 주관으로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이정운 의장 및 의원, 도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동기 부여와 의욕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동영상 시청 하였고,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대책위원장 모종국 위원장은 "무안의 미래가 걸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결사 저지를 위해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현재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연이온 고객이 56만 명을 돌파했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공항활주로 연장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로 공항 주변 역세권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류춘범 기자